

사회

‘어려운 수능’ 중위권 진학지도 비상

가채점 결과 등급 커트라인 대폭 하락 ... 하향·눈치지원 치열할 듯

수능 잘 못 봤다면 수시 2차 집중 전략을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가채점 결과 주요 영역의 등급 커트라인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일선 고교에서는 대입 지원전략을 짜내느라 비상이 걸렸다. 광주 인문계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의 모임인 ‘광주 진학부장 협의회’가 지난 19일 광주 수험생 2만여명의 2011학년도 수능성적을 가채점한 결과 수리 가 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80점)이 2009학년도(90점)보다 10점, 나(88점) 형은 지난해보다 3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어(90점)도 지난해보다 2점 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탓에 상·중·하위권의 구분은 더 명확해졌지만 중위권을 중심으로 눈치 보기와 막판 접수, 하향지원 현상 심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재수생 강제, 대입 경쟁률 상승 등 각종 변수도 복합적이다. <진학지도 비상 = 광주 진학 담당 교사들은 각 학생의 특성에 맞는 대입전략을 찾고, 상담하느라 진땀을

뻐고 있다. 학생들은 수능성적을 가채점한 결과 중·하위권 점수에 수험생이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뚜렷한 하향지원 추세도 대입성패의 주요 변수다. 내년부터 수리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부분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의 출제 범위가 확대돼 시험 부담이 커진 수험생들의 재수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철민 승덕고 진학부장은 “중위권에서는 하향지원으로 성적 분포가 밀집되기 때문에 서울 중상위권 대학부터 서울 하위권, 지방 주요 대학까지 눈치작전이 매우 심해질 것”이라며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맞춤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실부른 하향 지원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어사는 “지난해도 하향 지원이 심해 많은

수능 영역별 등급 커트라인(2009~2011)

* 광주 수험생 가채점 결과 추정치

Table with columns: 영역, 등급, 2009, 2010, 2011. Includes sub-tables for 언어 and 외국어.

Table with columns: 수리 가, 수리 나, 등급, 2009, 2010, 2011.

<광주시 교육청 제공>

하위권 학과의 합격선이 상위권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비슷한 성적대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능 성적 나쁘다면 수시 2차 노력> 수능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지 못했을 경우 수시 2차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용할 것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올해는 수능 후에 수시 2차 전형의 원서를 받는 대학이 80여개나 돼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특히 수시2차 전형 중에는 학생부

만 100%만 반영한 전형이 많으므로 학생부 성적이 좋은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건국대·동국대·서울시립대·숭실대 등 60개 대학이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학 중 상당수는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한다. 박연중 승원고 진학부장은 “수능 성적이 나쁘다면 수시 2차의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활로를 찾아보되 무엇보다 수시 2차에 적극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응급처치는 이렇게 21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제40회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경연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초등부, 대학일반부, 봉사원, 중고등부 등 80여개 팀 500여명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병원 리모델링 공사장 30대 숨진채 발견

21일 오후 2시25분경 리모델링 공사중인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병원건물 6층 변전실에서 전모(37·광주시 서구 삼암동)씨가 숨져있는 것을 현장소장(4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소장은 경찰에서 “건물을 점검하던 중 변전실 문이 열려있고,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전씨의 다리 등에서는 고압 전류에 감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그을림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전씨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언어영역 ‘채권’ 문제 오류 논란

지난 18일 치러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수능시험을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1교시 언어영역 46번 문항은 채권 가격과 금

리 변동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비문학 지문을 제시하고 밑줄 친 두 문항에 따라 보기에 제시된 포물선 그래프의 이동을 보여주는 문제다. 이 가운데 ‘㉠수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채권 전문가들 “정답 없다” 평가원 “학회 의뢰해 확인”

도 있다’는 문장에 따라 보기의 그래프 A가 ㉠, ㉡, ㉢ 중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묻는 것인데,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하향 평행 이동하는 형태를 표시한 ㉢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 전문가들은 ‘금리가 변하지 않고 채권 가격만 하락

하는 상황은 없다’면서 ㉠이 기술한 상황은 A 그래프의 이동이 아니라 A 그래프 내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예정대로 22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아본 뒤 권위 있는 학회에 의뢰해 확인하겠다”며 “논란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부모 욕했다” 친구 집단폭행 숨지게

광양경찰, 모텔에 옮기고 도주 10대 3명 영장 발령에 불응했다. 광양경찰은 20일 자신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한모(17·고교 1년)군 등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 등은 지난 18일 밤 9시부터 4시간여 동안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한 공터에서 박모(17)군을 집단 폭행한 뒤 인근 모텔로 옮기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퇴실시간이 지나도 객

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에 의해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날 오후 8시50분경 광양읍 덕례리 모 편의점에서 만난 박군이 한군의 부모를 욕하는 것을 듣고 불려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군 등은 또 19일 새벽 1시40분경 박군이 실신하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인근 모텔로 업고간 뒤 2층 객실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나 한군 등은 새벽 6시15분경 박군이 숨을 쉬지않는 것을 발견하고

지명수배 중 취업 사기 역대 가로챈 40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취업 사기로 지명수배를 받는 중에 또 다시 “자동차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황모(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경 광주시 광산구 한 커피숍에서 선배 김모(52)씨에게 “조카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50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받아 갇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지난 2008년 6월에 취업 사기로 지명수배를 받아 왔으며, 최근 1년간 16명의 구직자들로부터 채용대가로 4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안수득기자 70su@kwangju.co.kr>

야산에 ‘도박 텐트’

광주·전남 돌며 역대 도박 ... 조폭 등 10명 검거 벌인 역대의 산도박판만 18차례.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들로, 가져간 돈은 물론, ‘포지’로부터 가져온 도박채우까지 떠안은 상황이었다. 또 이를 꾸미고 일부는 호기심에 노름판에 뛰어 들었다가 가정이 파탄나고도 ‘일확천금’을 버리지 못하고 도박장을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 검사)는 21일 일석 등 7명을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8명을 지명수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tables for 아파트, 단독주택, and 기타.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tables for 아파트, 단독주택, and 기타.

● 공인 부동산의 매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농지임대 농지특허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인원이 매각절기일까지 농지특허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2010. 11. 22. 오후 10:00 3. 매각결정기일: 2010. 12. 13. [월] 14: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일반경매 방식의 기말입찰표에 서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법원에 함께 입찰서류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양식으로는 최고가매각의 1회 [10%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투입가능 또는 2회 이상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금의 액을 채운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②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명서와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신청의 유효성이 종료된 관하여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인원에게 입찰한 서류를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하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로부터 상대로 추기합당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최고가매수인임을 증명하는 다른 매수신청보증금의 입찰자가 출결없이 출결없이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입찰한 서류에 대하여 매각결정일당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당 확정된 대금지급금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 후 1주일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취소한다. 다만, 매각결정일 후 3일내까지 지정된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배당금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게 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통상 매각대금에 확정된 대금과 통상 매수인원 수합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증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준다. ③ 매각대금에 내오실 때에는 입찰자의 기체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영장을 첨부한 위임장이나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지 않으나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④ 소유권이전 농지특허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으로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특허자격증명 제출 없이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특허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⑤ 공인된 부동산의 매각일 전 매각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⑥ 산모에 응모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속행사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권을 하지 않으면 무리하면 계약서와 공고나 법원에 비추어 매각절기당 매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지 채무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알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공고(법정선박)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주소 지 중 일부와 다른 내용은 이따로 이를 이유로 매각절기가 상환이나 변경, 대금지급신청이나 승계명령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판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서서 게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추어 매각절기당 매각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장두봉